수완신도시 파오레
분양문의 (062) 367-3000

光州日報

한가위 특집

제17867호 2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9월 22일 (음력 8월 12일) 토요일

The Kwangju Ilbo

보인다 내 고향, 행복을 품는 곳

한가위 때만되면 영글은 벼 처럼 몸도 마음도 고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들녘을 바라보며 가을걷이 보다는 잔돈푼과 먹거리가 풍성한 '추석 대목'을 손꼽던 철없던 시절은 입가에 웃음을 머물게 합니다.

고향은 퍼내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추억의 '화수분'입니다. 발이 시리도록 맨발로 뛰어다니던 논두렁과 아름드리 당산나무 그늘에서 꿈을 그리던 그 시절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강이를 걷어올리고 하루 종일 손발이 붓도록 미꾸라지와 각시붕어를 쫓던 마을 앞 실개천은 또 어떤가요.

복숭아 솜털 같은 콧수염이 휘날릴 정도로 냇가에서 첨벙대던 천둥벌거숭이를 뒤로 하고 어머니는 고된 삶의 푸념과 자식걱정을 비비고 빨고 널었지요.

그래서 이지러진 달이 차오르는 한가위 즈음에는 누구나 까닭없이 가슴이 울렁거리는 '앓이'를 시작하곤 합니다. 굵은 아들딸 낳아 잘기르고 있는 자식들을 마음에서 놓치 못하는 그 어머님 생각이 세월에 둔탁해진 가슴을 뚫고 올라옵니다.

세월보다 빨리 내려앉은 흰머리와 갈수록 골 깊게 패이는 얼굴의 주름은 영원히 갚아내지 못할 마음의 빚입니다.

한가위라 못내 서운한 생각에 큰 맘먹고 준비한 선물을 뒤로 물리시고 손주 녀석들 품에 안고 마냥 기뻐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도 이맘 때입니다.

눈물이 쏙 빠지도록 회초리를 드시던 아버님의 등이 굽어보이고 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바라보며 불효를 떠올리게 되는 것도 추석이 주는 또 다른 각성입니다.

한가위는 사금파리 처럼 깨어져 살아온 살붙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재수혈 받음으로써 세상에 맞설 힘을 충전하는 '마음의 병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때문에 한가위 대목에는 "그래 어여 온나"라는 부모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저도 모르게 고향집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지도 모릅니다.

/글=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담양 용면=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晧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총무부	2200-511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29	광고국	2200-521 〈팩스 227-9500〉
정치부	2200-616	디자인	2200-536
경제부	2200-617	사업2부	2200-552
사회1부	2200-618 〈팩스 222-4267〉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2-0195〉
사회2부	2200-619 〈팩스 227-0118〉	판매부	2200-551 〈팩스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26	서울지사	02-773-9331 〈팩스 02-773-9335〉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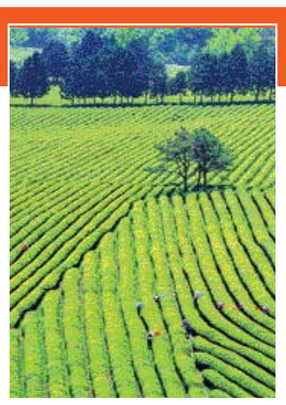
한가위 특집 지면 안내

■2면 올 추석 '환경 추석'으로

■3면 귀성·귀경길 교통정보

■4면 추석 차례상 차리기

■5면 추석 연휴 가볼만한 곳



■9면 추석 극장가

■10면 추석 TV 안방극장

■11~15면 추석 TV 프로그램